



「현명한 주부」를 현혹하는 자연식품이라는 망상

# ‘식품’ 인위의 결정체 마케팅 전략에 불과

北村美蓮



‘식품잔류농약·식품첨가물=위험, 무농약·무첨가=안전’ 풍조 근거 없는 낭설  
고비용 지출대가 위해 헛소문 수용, ‘발암원인’ 소비자와 역학자 견해차 커

**암**의 원인으로 잔류농약을 강조하는 소비자운동가와 영향이 없다고 보는 의학자와의 견해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연식품’이라는 말도 그 실상을 따져 보면 요즘 가장 수상쩍은 것 중의 하나다.

갑자기 이렇게 호통을 치면 실제로는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농작물을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표시로 오해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일 수 없고 그래서 ‘자연식품’은 망상일 수밖에 없으며 ‘자연식품’ 시장은 천박한 이기주의적 사업을 위한 장(場)으로서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약간 오래전의 일이지만 비주얼(visual)

남성지 중의 하나인 Bart지는 대특집으로 ‘환경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싣고 그 중에 자연식품 신앙이라는 테마를 게재하고 있다. 이 테마는 가히 자연식품 시장의 구조를 살피고 파악하는데 좋은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신앙파의 논객(?)은 자연식품 체인점인 N 하우스 부점장인 여자다. 그녀는 ‘일본에서는 연 20만명이 암으로 죽으며 그 중에서 5천명이 농약을 사용한 채소나 쌀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서두를 꺼낸다. 그리고는 ‘자기 가게에서는 합성첨가물, 보존료, 착색료를 쓰지 않는 것이 영업의 철칙’이라고 PR한다. 그러면서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암에 걸릴 가능성도 있는 첨가물식품을 먹일 것인가,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도 자연식품

을 먹일 것인가, 이것은 엄마의 결단 나뭇' 이라고 끝을 맺는다.

이에 대해 신앙 부정파는 '본래부터 자연식품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인공제품과 다르게 없다' 라고 참으로 올바른 견해를 피력하고 '자연식품을 먹으면서까지 오래 살 이유가 있는가' 라는 제법 엄숙한 질문을 던진다.

필자는 한번 읽어보고 Bart편집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타이틀과 서브타이틀이 별로 뛰어나지 않는 점을 보면 이것은 자연식품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인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그 바보의 바보노릇을 야유하기 위해 실은 것일까. 그러나 이 특집에 실려 있는 환경문제에 관한 그 외의 기사에 얼치기 생태학자가 퍼트리고 있는 '저게 위험하다. 이것이 무섭다' 는 류의 말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문제는 식품잔류농약이나 식품첨가물은 위험하고 무농약·무첨가면 안전하다고 하는 근거 없는 낭설을 쉽게 믿으려는 '풍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와 같이 화통한 논조의 신앙 부정파 조차 '자연식품을 먹으면서까지' 라고 말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자연식품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 우선은 낭설은 낭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지 않으면 안된다.

### **'농약 유무·식품 안전' 관계없어**

필자는 값싸고 쓸모없는 '생태학 논의'가

난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환경문제와 환경론에 관한 책을 썼다. 「지구는 정말로 위험한가?」라는 제목의 책에는 「타마카와에 연어가 돌아오게 하자」 「합성세제를 추방하자」 「나무젓가락을 쓰지 말자」는 따위의 제안이 환경보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런 흑세무민(惑世誣民)적 제안과 나란히 소비자, 특히 '현명한 주부'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진짜로 지적이지는 않은 층에 만연하고 있는 「무농약 안전신화」를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면서 제법 철저하게 두들겼다. 내키지 않지만 요점을 정리해 다시 설명해 보자.

농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그 농산물의 안전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것을 의외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찌면 적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이유는 단순하고도 명쾌하다.

식물은 움직여 도망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균류나 곤충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진화의 과정을 통해 독성화합물질을 생합성하는 능력을 획득하였다. 어느 식물이건 수십 종류의 독성물질(천연농약성 물질)을 체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식품에 잔류하는 흔적 정도의 농약은 있으나마나 할 정도에 불과하다. 발암물질의 검색시험으로 널리 알려진 「에임즈 테스트」의 창안자인 캘리포니아대학의 생화학자 에임즈 교수에 의하면 보통분량의 식사에서 섭취하는 천연농약성 물질의 양은 무게로 따져서 식품잔류농약의 1만배 이상이나 된다.

천연농약성 물질은 천연이므로 안전하다

## 「현명한 주부」를 현혹하는 자연식품이라는 망상

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오해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에서 무기로 사용되어 화제가 되었던 바곳(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생 풀)의 뿌리에 함유된 알칼리성 물질인 아코니틴은 강한 급성 독성을 지닌 천연식물독이다. 아무도 이것이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천연이건 인공이건 독성물질은 독성물질인 것이다.

한편 인공합성된 유기화합물이 주류인 농약 쪽은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변식독성, 최기형성 등의 독성시험을 거쳐 현대과학으로 가능한 한의 안전책(인간이 식품에 잔류하는 양을 평생 섭취하여도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범위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 일반적으로 야생종이나 내병·내충성 품종에서 천연농약성 물질의 생산이 많다는 것, 식물이 유해생물의 공격으로 스트레스나 손상을 입게 되면 천연농약성 물질의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농약이 안전하다는 따위의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천연농약성 물질, 식품잔류농약,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본래 '상식' 이라야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무농약 안전신화」의 이면에는 '농약·첨가물 위험신화'가 만연하고 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가 있다.

소비자운동에 관심을 가진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부들이 암 발생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식품첨가물 43.5, 농약 24, 담배 11.5, 대기오염·공

해 9, 누룽지 4, 바이러스 1이다. 첨가물과 농약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셈이다. 그러나 역학적으로 암의 발생원인을 연구하여 현 단계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식사·식생활 35, 담배 30, 바이러스 10, 성생활·출산 7이다. 그 한참 아래에 식품첨가물 1이 있고 농약에 이르면 제로(0)이다.

덧붙여 말하면 역학자가 말하는 '식사'란 구체적으로 음식물의 섬유부족, 과식, 지방과다, 영양적으로 필수이면서 발암성을 가진 미량원소의 섭취 등이며 천연농약성 물질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어서 분석시점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적은 양으로 균형 있는 식단을 구성하고 발암억제물질(비타민 C 등)을 함유하는 채소나 과실의 충분한 섭취, 소금을 줄이는 것 등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미리 말해두지만 그렇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인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은 나이가 들면 확실히 암에 걸리기 쉽게 된다. 극히 보통의 생활, 그뿐 아니고 세세하게 건강에 조심하는 생활을 해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작은 암발생 원인을 체내에 축적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의 절제는 그 축적속도를 조금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食(음식과 식사 모두를 의미함)의 안전을 염려하여 무농약에 구매받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고 무첨가에 구매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납득할 수 있기 바란다.



자연식품시장은 실체가 없는 plus image(이익이 된다는 생각)가 주어진 '자연'이라는 기호를 파는 사업장이 된다. 공급자측은 중요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헛소문을 퍼트리게 되고 수요자는 지출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 스스로 헛소문을 수용한다. 바로 이것이 의혹의 근원이다.

### 식품, 기본적으로 '인위의 결정체'

이제 간신히 '식품'의 영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듯하다. 식품, 즉 사람이 먹는 것이 야생동물의 먹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조리 가공을 거쳐 제공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위(人爲)의 결정체라는 점이다.

하기는 자연상태의 물고기와 야생의 조수(鳥獸), 잡초도 마을부근이 아닌 산야초라면 음식재료로서는 자연산이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나 그런 먹거리를 스스로 구해서 조리를 하면 그 행위는 인위인가? 혹은 자연산 재료는 유통과정에 들어가도 역시 자연산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연과 인위의 한계는 애매해진다.

그런데 농산물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식품가공은 뛰어난 인위이다.

그 때문에 현존하는 '자연식품'은 말뜻의 모순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소위 '자연식품'이 취미나 기호에 머문다면 그런 말뜻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부끄럽지만 자연식품이 취미라…」라고 하는 소비자와, 그 수요에 응해주고 적절한 이익을 올리는 공급자가 있어도 흠잡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자연식품'은 반드시 '안전하다'든가 '건강에 좋다'든가 하는 근거 없는 낭설을 둘러쓰고 있다.

그래서 자연식품시장은 실체가 없는 plus image(이익이 된다는 생각)가 주어진 '자연'이라는 기호를 파는 사업장이 된다. 공급자측은 중요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헛소문을 퍼트리게 되고 수요자는 지출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 스스로 헛소문을 수용한다. 바로 이것이 의혹의 근원이다. Y